

WELCOME TO THE CONCERT

오늘 밤,
독일 클래식 문화를 지탱해 온 도시 드레스덴에서
독일 악단의 강자로 자리매김해 온 드레스덴 필하모닉이
2년 만에 통산 다섯 번째 내한공연을 갖습니다.

2008 라파엘 프위벵 데 부르크스 미샤 마이스키 // 2013 미하엘 잔데를링 율리아 피셔 // 2015 미하엘 잔데를링 백건우 // 2017 미하엘 잔데를링 김진욱

2011년 가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약 중인 **미하엘 잔데를링**은 과장보다는 절제, 과감보다는 섬세함이 어울리는 지휘자로, 지난 8년간 드레스덴 필하모닉에 생기를 불어넣은 주인공입니다. 일반적인 공연 프로그램과 달리 다소 특이한 구성을 보여줄 이번 공연은 1부에서 협주곡이 아닌 **슈베르트 교향곡 8번 '미완성'**과 **베토벤의 전설적인 역작 교향곡 5번**이 연주되어 담백함과 절제미가 돋보이는 드레스덴 필하모닉만의 음악 세계를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. 2부에서는 힐러리 한, 재닌 안센과 함께 21세기 여성 바이올린 트로이카로 불리는 **율리아 피셔**가 장엄하고 짙은 색채의 **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**을 협연하여 독일 낭만음악의 절정으로 이끌며 공연을 마무리합니다.

독일 태생의 지휘자와 협연자로, 그리고 돈독한 실내악 파트너로 오랜 기간 함께하며 음악을 공유해 온 잔데를링과 피셔. 그들의 단단한 케미스트리를 6년 만에 다시 만나볼 수 있는 <율리아 피셔 & 드레스덴 필하모닉> 공연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기다려진 이유입니다.



Dresdner
Philharmonie

© Markenfotografie